전남 콘텐츠산업 전국서 가장 열악

최경환 국회의원 국감 자료 100조대 매출 중 수도권 87% 전남 0.3% 그쳐···사업체수 2.5%·종사자수 1.1%

광주도 광역시 중 최하위

전국 콘텐츠산업의 매출액과 사업체수, 종사자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 며 전남지역 콘텐츠산업 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. 광주지역 콘텐츠산업 상황도 전국 광역시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.

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 화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아 7일 분석 배포한 '콘텐츠 산업의 수도권·지역 간 편차 현황'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4조8000억원이던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015년 100조 3400억원, 2016년 105조3200억원으로 연평균 7.5%의 성장률을 보이며 팽창하고

이 가운데 수도권 콘텐츠 기업의 매출액 은 2016년 91조7000억원으로 전체 매출 액의 87%를 차지하고 있었으나,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매출액은 13조6300억원으로 13%에 불과했다.

수도권의 콘텐츠산업 사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며 2016년 6만140개(56.8%)인 반 면 비수도권의 사업체수는 매년 줄어들며 2016년 4만5651개(43.2%)였다. 종사자 수도 2016년 현재 수도권 기업에는 전체 의 75.6%인 45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반 면 비수도권 기업에는 24.4%인 14만 5000여명만이 근무하고 있다.

지역별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·도 중에서는 전남이 2016년 현재 사업 체수비중 2.5% (2606개), 종사자수 1.1% (6390명), 매출액 0.3%(3600억여원)로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였다.

투데이

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경우 도 2016년 현재 사언체수 비중 3.3% (3499개), 종사자수 2.0%(1만1857명), 매출액 0.9% (9760억여원)로 7대 광역시 중 대표적 제조업 도시인 울산 (2.1%, 1.1%, 0.5/5)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.

이런 상황인데도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 육성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역 간 편차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.

또한 광주와 전남지역 콘텐츠산업에 대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도

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콘텐츠산업 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.

최경환 의원은 "콘텐츠산업은 인력 확 보, 지역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, 지 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"며 "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 차를 줄여 콘텐츠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역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이 수립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"고 말했다.

한편, 콘텐츠산업이란출판·만화·음악·영 화·방송·게임·광고·애니메이션·캐릭터·지 식정보·콘텐츠솔루션·공연 등 문화상품의 생산·유통·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/박지경 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다스 실소유 '국민적 의혹' 10년만에 풀려 MB "새빨간 거짓말" 새빨간 거짓말 됐다

'다스는 MB것' 1심 징역 15년

설립 도운 옛 측근 진술 인정

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 유주는 이명박(77) 전 대통령이라고 결 론내렸다.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 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'다스는 누구 것인가'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.

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유력 대 선주자였던 이 전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사안이었다.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당 시 이 의혹과 더불어 BBK 투자사기 연 루 의혹,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싸잡아 "새빨간 거짓말"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검증을 통과한 채 대통령에 당선됐 지만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사 실로 인정됐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정계선 부장판사)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 고공판에서 "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 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"고 판시했다.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다 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.

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

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▲이 전 대통 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▲이 전 대 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 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▲이 전 대통령 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 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.

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 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.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법정에서 다퉜다.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 성이 크다는 것이다. 그러나 재판부는 "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 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 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.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 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"며 이 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.

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역시 68억원 중 59억원을 뇌물 로 봤다.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 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.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 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 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. /연합뉴스

전남도, 국립 면역치료연구원 유치 추진

"90조 규모 면역치료시장 선점"…연내 타당성 용역 완료

전남도가 90조원 규모의 면역세포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립 면역치료연구 원 유치에 나섰다.

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화순·나주·장흥 생물의약산업 벨트 에 면역세포 연구 컨트롤타워인 국립 면역 치료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연내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.

전남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, 국가전략 사업에 반 영되도록 할 계획이다. 사업비는 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.

또 선도사업으로 벤처기업의 면역세포 연구개발, 임상,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 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'면역세포 치 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'을 내년부 터 본격 추진한다.

숲·섬·해양 등 뛰어난 자연 치유공간을 활용해 암 치료시설, 요양병원, 호스피스, 장수식품 등 면역 치료와 연계된 첨단 의료 휴양단지도 조성한다.

전남에는 지방 종합병원 가운데 암 임상 ·치료 건수가 가장 많은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국가출연기관 KTR 헬스케어연구 소, 백신 시제품을 제조하는 전남생물의약 연구센터, 백신을 생산하는 ㈜녹십자 등이 있다. 면역치료 산업에 필요한 원스톱 체 제를 갖춘 셈이다.

면역치료는 면역 반응을 유발·촉진하거 나 억제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. 기존 약품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내 성을 유도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암, 치매 등 초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미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.

의약 전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GBI 리서치는 전 세계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 를 2015년 기준 169억 달러(약 20조원)에 서 매년 23.9% 늘어 2022년 758억달러 (약 90조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최근에는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명예 교수와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 MD앤 더슨 암센터 교수가 '면역 관문 수용체' 발 견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.

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"면역 세포와 면역항암 치료 시장은 단순한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, 의료장비·원료 등 제 조업 분야로 파급・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크다"며 "화순백신산업특구의 항암 연 구·치료 기반을 중심으로 나주 기능성식 품, 장흥 천연물소재, 완도 해양치유 등과 연계해 종합 면역세포치료산업 기반을 다 져나가겠다"고 말했다.

/박정욱 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아버지가 심은 10·4 소나무 앞에서 노무현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지난 6일 오전 평양 중앙식물원을 찾아 10·4 남북

공동선언 기념 소나무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방북 당시 김 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중앙식물원에 소나무를 심었다. 한편, 평양을 찾았던 민관 방북단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귀환했다.

무라드·무퀘게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

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지난 5일(현지 시간)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 운 동가 나디아 무라드〈왼쪽〉와 콩고민주공 화국의 의사 드니 무퀘게를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
노벨위원회는 "이들은 전쟁과 무력분 쟁의 무기로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했다"고 선정 이 유를 밝혔다.

무라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 슬람국가 IS의 성노예 피해자로 IS의 만 행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. 특히 IS를 민 족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

지난 2014년 IS에 납치된 뒤 가까스로 탈출,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독일에



거주하고 있다. 이후 인권운동가로 변신 해 활동중이다.

또다른 수상자인 산부인과 의사 무퀘 게는 두 차례 콩고 내전 중 잔인한 성폭 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 을 치료하고 이들의 재활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. /박성천 기자 skypark@



경/공매 입찰/낙찰물건 근저당/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! (주)오천경매.010-3605-5000

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

광주일보

부실채권 **못받은 돈**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

- 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 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>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(24시간 상담가능)

새한신용정보(주)

010 - 6833 - 1600 직통전화 062)513-4306

한마음 공인중개사

-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(학원적합) 매매가 7천만원
-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
-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㎡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
-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㎡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외 매가 3억7천만원
-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㎡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
-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㎡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외 매매가 5억5천만원
-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㎡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
-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㎡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
-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㎡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
-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㎡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•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㎡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
- 매매가 14억원 • 북구 신안동 대지 520㎡ 매매가 14억5천만원
-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㎡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외 매가28억원
- 북구 운암동 대지2600㎡ 보9천만원 월500만원
- 해남 사찰및납골묘 1300기 토지3600㎡ 매매가 8억5천만원

☎ 010-2314-8567 (계림오거리)



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!!

글로링크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. 문의: 02-502-8898 | 서울본사 글로링크 에듀센터 순천광양국제캠퍼스 홈플러스 삼성디지털 프라자 • • 조례초

파격가 임대!!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100%전세도 환영 임대가 평당 600만원(전세가능)

1층 입점 베이커리, 아이스크림, 문구점, 약국, 편의점, 안경점 등 2층, 3층 Kids Cafe, 영어도서관, 스피치학원, 입시상담, 심리상담(치료), 유학컨설팅, 과학, 레고, 로봇 등

성심부동산 010-6665-7355 대표 김종호

() 다스코I쥐

🥒 메라코|쥐

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**다스** 코!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 라 코!



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!

전략기획 •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, 경력 10년 이상 전략기획 화순 신재생에너지 수질정화 설계양업 ·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